

광주시 직접고용 전환 749명 정규직 된다

비정규직 78명 연말까지 직접고용 ...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부평가 2년 연속 ‘가’ 등급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방침으로 신분이 한층 안정된 근로자들이 후속적으로 정규직 전환된다.

광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대책’ 후속으로 직접고용 전환자들을 현 소속기관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비정규직 827명 가운데 91%인 749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78명도 올 연말까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용역 신분에서 시 분청 또는 출자·출연 기관에 소속된 데 이어 기간제였던 고용 형태도 무기계약으로 바뀌게 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직접고용 전환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분청 회계과를 시작으로 대상자를 공무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시는 ▲현 소속기관에서 직접고용 ▲기존 공단 기능 재편에 의한 고용 ▲공사·공단 설립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설립 등 4가지 고용구조 방안에 대해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현 소속기관 직접 고용 방안을 택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현 소속기관에서 무기계약 형태로 고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꼽았다. 또한, 직접 고용시 13.7% 내외의 임금 인상이 가능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반면, 직접 고용 전환에 따른 인력 운용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나왔다.

따라서 시는 인력이 늘더라도 직접고용

전환 인원은 기존 인건비나 공기업 경영평가 감점 요인에서 배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걸림돌을 없앴다.

앞서 광주시는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해 2월과 12월에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4월에는 노·정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 공무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수용해 적정임

금을 실현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광주시에서 재정 압박을 주지 않는 등 사회 대화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결실이 나타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는 노동자로서 누리는 최소한의 권리와 자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한 형태”라며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하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은 서울과 함께 모범사례로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기도 했다.

/최현길기자 cki@kwangju.co.kr



남북관계 개선 촉구 평화선언 27일 광주진보연대회원들이 동구 금남로 5.18 기록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평화선언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인사는 군수 뚝” 해남부군수들 직무유기

감사원, 지난해 감사 적발 내용 불법 묵인·몸사리기... 전남도 송방망이 처벌

“전남 22개 시·군 부군수도 같은 사정일 것”

“군수로부터 부임 초기에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군수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하나 군수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사 담당 팀장과 과장이 군수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는데 팀장, 과장이 결재했으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지 알지 못하며 부군수가 군수를 보좌해야 한다.”

“부군수가 인사에 개입하면 군수와

관계에 문제가 생기므로 인사는 군수의 몫이다.”

인사위원장이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인 전·현직 해남 부군수들이 군수와 공무원들의 불법인사를 묵인하고 막상 부군수 자신들의 권한은 내팽개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해남군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과장이 전·현직 해남 부군수 4명 등에 대해 작성한 징계요구서를 확인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이자 6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확인자인 이들 부군수는 박철환 군수 재직 당시인 2012년부터 214년까지 군수가 부당하

게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또한 이들 부군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작성된 개보 보고 공문에 결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일부 부군수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과 6급 이하에 대한 근무평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도장을 인사실무자에게 맡겨 실무자가 임의로 평정·확인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은 승·진·전보 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 자료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남군은 박철환 군수가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된 사실을 밝혀냈고, 현재 박 군수는 인사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9월 이모, 정모, 배모 전 부군수와 양재승 현 부군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2015년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선자치제도 현실상)부군수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문에 부쳤다.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전남도의 불분처분은 해남군수 권한대행을 하는 양재승 부군수가 최근 전남도의 부군수 교체 요구를 거부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도 인사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은 27일 “해남군의 인사비리는 부군수가 권한을 내팽개친 것과 무관치 않다”며 “전남도가 부군수들에 대해 징계를 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전남도 산하단체 기관장도 “인사비리에 책임있는 부군수를 문책했어야 했다”며 “인사비리에 책임이 있는 부단체장이 자리를 계속 보존하는 현실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남도 한 4급 공무원은 “해남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 지자체 병폐일 수 있다”며 “단체장 견제 장치와 별도로 부단체장 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연남뉴스

광양 불고기 거리, 음식테마거리 지원사업 선정

한국관광공사 1억 지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음식테마거리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광양 불고기 거리’가 선정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음식테마거리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 2012년부터 매년 3개소를 선정해 음식거리 현장진단 및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음식거리를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국비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응모했으며, ‘광양 불고기거리’는 전남도가 자체 추진하는 1시간 1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관광기반환경 및 운영역량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양 불고기거리 컨설팅, 홍보, 교육, 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음식특화거리 지원 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3년 답양 죽순푸드거리, 2014년 함평 천지향우비빔바거리, 2015년 영암 독천낙지거리 등 전남지역 음식거리가 4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김진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앞으로도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음식테마거리 관광활성화 사업 등 중앙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해 음식거리 조성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위안부 지원 ‘화해·치유 재단’ 공식 출범

지난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 재단’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순화동 사무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헌관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한일합의의 7개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린 이후 2개월 만이다.

이사회는 재단설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태연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사진은 준비위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 이사장은 헌관식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출범 준비 경과와 앞으로 사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을 사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형식상으로는 여가부 등록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등을 주장하며 한일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일본이 약속한 10억엔(약 108억원)의 출연 시기도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동차 결합 교환·환불 쉬워진다

입고수리 4회 이상때... 모바일 상품권 1주일내 전액 환불

차량을 구입한 뒤 1년 이내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합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 전망이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구입 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같은 내용의 중대한 결합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

결합이 4회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중대결합·일반결합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교환·환불 기간을 계산할 때 시점이 차량인도일보다 한참 앞선 차량 신규 등록일이나 제작연도의 말일로 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교환·환불 기간은 1년보다 짧은 문제가 있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금액 기준도 신설됐다.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람찾음

성명: 박영욱 (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울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밤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차폐증상이 없음.

위 인사항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십니까? 퇴직이후가 걱정되십니까? 노후대책이 없습니까?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의대해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영리한 실전투자 물건위주 강의!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7. 18(월) ~ 2016. 9. 9(금)
- 수업기간: 2016. 9. 8 ~ 2016. 12. 8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usun.ac.kr/igelong
- 접수문의: 062)230-7700~2 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점 ▶ **거래가 18억원**
- **담양군 수북면사무소 북동측인근** 임야2428평 계획관리지역 투자기회 지대넓음 준보전산지 ▶ **감정가 2억2천 최저가 2억2천**
- **나주시 경현동 대지84평** 포장도로접자연녹지지역 동산대인근 주변환경 양호 평당38만원 ▶ **감정가 3천2백 최저가 3천2백만원**
- **광산구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방11개 수문초,신장증인근 위치 및 건물최상 ▶ **최저가4억7천만원**
- **북구 흥동동 광주역 8차선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2층건물109평** 대지155평 코너위치 음식점 추천,주공아파트후문 ▶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건너편** 대로변접 지하 1층~지상 3층 근린시설 100평 토지 100평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7억원**
- **북구 오치동 3층다가구주택** 건물105평 토지58평 건물양호 서산초등학교인접 ▶ **감정가 3억5백 최저가 2억2천만원**
- **북구 용봉동 4층중 3층복합상가** 건물 30평 토지 18평 사무실추천 ▶ **감정가 1억2천5백만원 최저가 3천7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주)엠에스토피아 M&A 공고

1 개요

(1) 회사개요: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회생회사로서 농축산물, 단미보조료 및 비료 등의 제조 판매업 영위

(2) 매각대상: 세가지 핵심 유상증권 포함 외부채권 유지

(3) 입찰방식: 공개경쟁 입찰

2 거래절차

(1) 인수의행사 접수 및 예비입찰

- 접수기간: 2016년 07월 28일(목) ~ 2016년 08월 03일(수) 17:00까지(대한민국 표준시)
- 접수장소: 안세회계법인 광주지점 [(주)엠에스토피아 M&A추진팀]
- 접수서류: 인수의행사서 7부(광주도시청도공서 5부)
- 제출서류: 인수의행사서 및 첨부서류, 비밀유지 확인서, 인수의행사서 등 서식은 M&A매각주관사무처에서 수령

(2) 자료열람 및 예비입찰

- 기 간: 2016년 08월 04(목) ~ 2016년 08월 05(금) 12:00까지(대한민국 표준시)
- 장 지: 인수의행사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 납부 및 매각주관사무처의 사전의사를 통과한 자
- 장 소: 안세회계법인 광주지점 [(주)엠에스토피아 M&A추진팀]
- 방 법: (광주 시 구 사무대로 760 광주도시청도공서 5층)
- 입찰 안내서에 기재된 조건을 구비하여 일괄제출 (입찰 안내서는 예비입찰기간 중 배부 예정)
- 입찰서류 개봉: 2016년 08월 09일(화) 16:00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3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주)엠에스토피아(이하 "회사")의 M&A를 위한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이 해당하지 아니함
- 인수의행사서, 입찰서 등 입찰서류의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대상자 선정 등은 회사 및 매각주관사무처의 고유권한이며, 모든 참가자는 그 결과 등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인수의행사서 등 본건 매각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접수기간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할 (유연 팩스, 전자메일 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일체는 잠재투자자 이외의 회사, 철학, 학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M&A를 위한 매각절차의 주요한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및 회생회사 M&A절차에서의 대한민국법원의 실무관행에 따른다

본 건 진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회사의 매각주관사무처 안세회계법인 광주지점 [양철성 회계사, 062-714-3303, 010-9215-9660]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8일

회생회사 주식회사 엠에스토피아 M&A의 매각주관사무처 안세회계법인